연예인과 데이트 즐기고… 해외 공연 관람하고…

가상과 현실의 공존… 생활 속으로 훅! 들어온 5G마을

르포 | LGU+ '일상로5G길' 가보니

혼밥식당·만화방 등 일상 공간 구성
팝업스토어 체험… 궁금증 해소 힘써
요가·쇼핑·힐링 등 콘텐츠 확장 계획

서울 강남 인근에 위치한 '일상로5G길' 팝업스토어 입구. /김나인 기자

1일 서울 강남역 인근. 눈길을 사로잡는 검정, 핑크 줄무늬 외관으로 장식한 대형 팝업스토어 '일상로5G길'이 열렸다.

이날 약 200평 규모로 구성된 일상로5G길 입구에 들어서니 역사, 혼밥식당, 사우나, 클럽, 만화방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들이 곳곳에 구성돼 있었다.

옥수역으로 꾸며진 VR 옥수역에 들어가 가상현실(VR) 헤드셋을 머리에 쓰니 한때 화제를 끌었던 공포 웹툰인 '옥수역 귀신'이 눈앞에 펼쳐졌다. 전철이 눈앞에서 달리는 하이라이트 구간에서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혼밥식당 코너에서 헤드셋을 머리에 쓰면, 선상에서 인기 아이돌 멤버 차은우가 눈앞에 나타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끈다. 바로 눈앞에 아이돌 멤버가 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 특징을 가진 5G가 일상화 되면, 끊김 없이 고화질로 누릴 수 있는 콘텐츠다.

LG유플러스가 오픈한 일상로5G길은 작은 5세대(5G) 이동통신 마을 개념이다. 실제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공간을 구성해 5G 상용화 이후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험해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진행한 5G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90%가 5G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다만, 76%가 '속도의 변화 정도로 알고 있다', 49%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등 아직까지 5G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로5G길' 팝업스토어의 '혼밥식당' 코너.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팝업스토어를 통해 5G 콘텐츠 체험을 유도해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상무)은 "2030 세대 유동인구들이 많아 강남역 인근에 팝업스토어를 열게 됐다"며 "젊은 세대뿐 아니라 요가, 쇼핑, 힐링 등 콘텐츠를 준비해 다양한 세대로 타깃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상로5G길은 혼밥식당에서 손나은, 차은우 등 유명 연예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유플극장에서 '태양의 서커스' 등 해외 유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사우나에서는 인기 웹툰인 '목욕의 신'을 1인칭 시점으로 즐길 수 있다.

2층 아케이드 공간에서는 LG전자의 'LG V50' 듀얼스크린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다. 5G 단말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내달까지 두 달간 휴일 없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도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마케팅과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5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9GB(소진 후 1Mbps 속도제한)를 제공하는 '5G 라이트' ▲월 7만5000원에 150GB(소진 후 5Mbps 속도제한)를 서비스하는 '5G 스탠다드' ▲월 9만5000원에 250GB(소진 후 7Mbps 속도제한)를 쓸 수 있는 '5G 프리미엄' 등 5G 요금제 3종을 내놨다.

박종욱 모바일상품그룹 전무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5G 요금제가 5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더 많다"며 "5G 고화질은 5Mbps로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VR·AR는 7Mbps로 부족할 수 있다. VR 콘텐츠를 1시간 즐기는 데 데이터는 25~30GB 정도 소모된다"고 말했다.

5G 요금제로도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자사 콘텐츠 위주로 제로레이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1000여편의 VR 콘텐츠를 수급할 예정이다. 선정적인 콘텐츠는 출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첫 5G폰 5일 공식 출시… 이통사 마케팅戰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 특징
통신3사 요금제 하한선 5만원대

모델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를 소개하고 있다. /KT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가 오는 5일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5G 마케팅 대전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는 6.7인치 크기로 256GB와 512GB의 두종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1일 256GB 모델은 출고가 139만7000원(부가세 포함), 512GB 모델은 155만6500원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4일까지 삼성 갤럭시 S10 5G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이 5G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중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63.5%로 과반을 넘었다.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G 이용을 위해 휴대폰을 교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47.7%가 5G 사용을 위해 휴대폰을 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200여평 규모의 대형 5G 팝업스토어인 '일상로5G길'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오픈했다. SK텔레콤은 4일부터 실감형 미디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300여개 매장에서 'VR 체험존'을 운영한다. KT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5G 체험관을 열고 '#청춘해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체험관에서는 방탈출게임 형태로 구성된 '5G 미션룸'에 관람객이 몰렸다.

요금 경쟁도 치열하다.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하한선을 5만원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9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월 5만5000원에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5만~12만원대까지 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손잡고 갤럭시S10 5G 사전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S10 5G(5명) ▲무선청소기(55명) ▲무선충전기(555명) ▲음료교환권(5555명)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아울러 16일까지 갤럭시S10 5G를 개통하는 가입자에게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액티브 할인쿠폰, 무선 충전 패키지 중 한 가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KT에서 16일까지 갤럭시S10 5G를 구매한 고객은 갤럭시 버즈, 무선충전 패키지, 갤럭시 워치 액티브 할인쿠폰 등 한 개를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서는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가상현실(VR) 헤드셋을 무상 제공(5G 라이트 요금제 고객은 3만원에 구매 가능)하는 혜택을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김나인 기자

갤럭시 S10 5G.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출시… 주요 제원은

총 6개 카메라·4500mAh 대용량 배터리

고사양 게임·VR·AR 자유롭게 즐겨
3D 심도 카메라 기능·8GB 램 탑재

삼성전자가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를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한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놀라운 속도와 연결성을 지원하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는 삼성전자의 비전인 '커넥티드 리빙' 실현을 앞당긴다"며 "갤럭시 S10 5G를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더 많은 소비자들이 5G 이동통신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10 5G는 시네마틱 경험을 제공하는 6.7인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후면 쿼드 카메라 등 총 6개의 카메라, 4500mAh 대용량 배터리 등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을 탑재한 갤럭시 S10 5G는 고사양 게임도 끊김 없이 높은 몰입감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특히 후면에 삼성전자 최초로 적외선 기술을 활용한 '3D 심도 카메라'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에 보케(렌즈의 초점을 인물에 맞추고 배경은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기법)효과를 주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은 물론, AR 기반으로 물체의 길이 등을 측정하는 간편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갤럭시 S10 5G는 5G 무선통신 기술을 빠른 처리 속도로 최상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8GB 램을 기본 탑재했을 뿐 아니라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 25W의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갤럭시 S10 5G는 256GB, 512GB의 두 가지 내장 메모리 모델로 출시된다.

256GB 모델은 크라운 실버·마제스틱 블랙·로얄 골드의 총 3가지 색상으로 가격은 139만 7000원이다. 512GB 모델은 크라운 실버·마제스틱 블랙 2가지 색상으로 가격은 155만 65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 갤럭시 S10 5G 주요 제원

디스플레이	162.9mm(6.7형) Quad HD+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후면카메라	• 1,200만 화소 듀얼픽셀 카메라 (F1.5·F2.4 듀얼조리개) • 1,600만 초광각 카메라 • 1,200만 망원 카메라(광학 2배줌) • 3D 심도카메라
전면카메라	• 1,000만 화소 듀얼픽셀 카메라 (F1.9) • 3D 심도카메라
크기 / 무게	77.1 x 162.6 x 7.9mm / 198g
CPU	8nm 64bit 옥타 코어 프로세서
메모리	8GB + 256GB/512GB
배터리	4,500mAh
색상	256GB: 크라운 실버, 마제스틱 블랙, 로얄 골드 512GB: 크라운 실버, 마제스틱 블랙

제품의 사양은 양산·출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삼성전자 연합뉴스